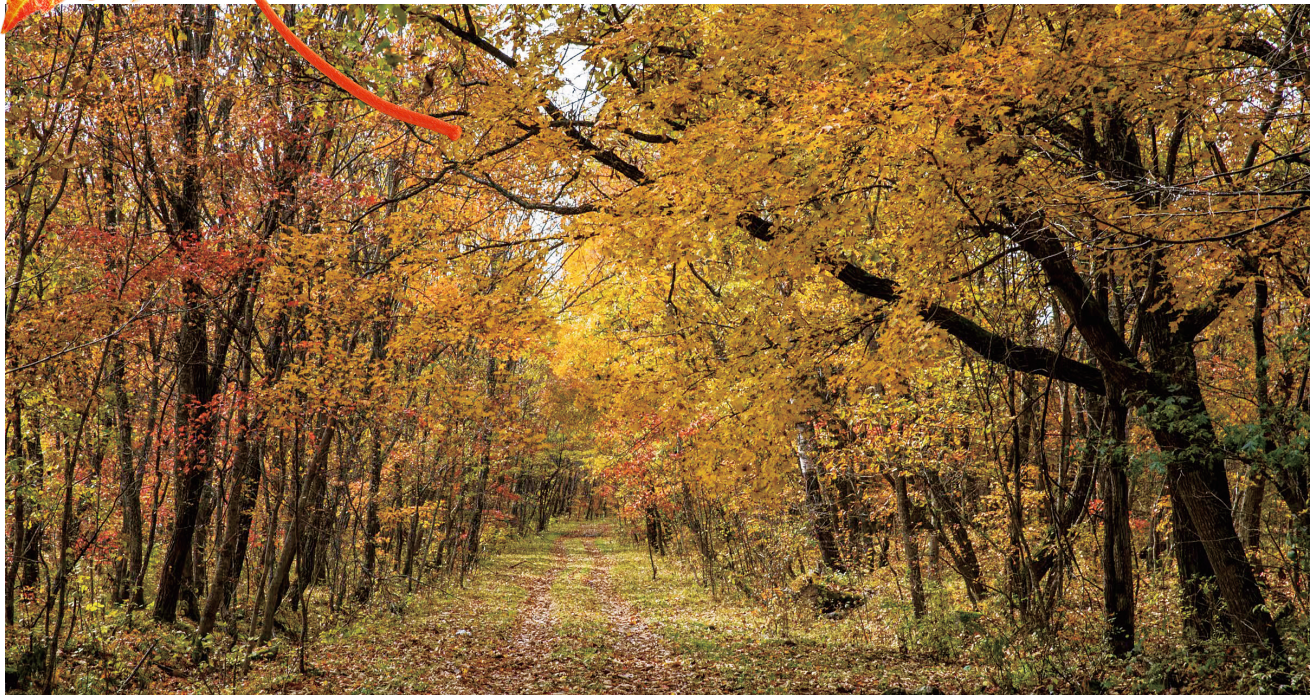


훈춘 삼도구의 늦가을 정취

늦가을이 되면 훈춘시 삼도구(三道沟)의 아름다운 풍경이 많은 사진에 호가들의 발길을 끈다. 맑은 시내물이 바위 사이로 졸졸 흘러내리고 울긋불긋 단풍으로 물든 시내가는 자연의 조화와 편안함이 가득하다.

촬영가 류백령(刘佰玲)은 최근 이곳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에 담긴 흐르는 시내물과 붉은 단풍나무숲이 한폭의 움직이는 그림처럼 늦가을의 시각적 향연을 독자들에게 선물하고 있다.

/ 길림일보



아름다운 왕청, 다채로운 황금가을

최근 들어 생동하고 아름다운 가을 경치가 그림과도 같이 고요히 왕청 대지에 펼쳐지고 있다. 가을의 산은 마치 자연이라는 신기한 화가가 정성껏 그린 그림마냥 색채가 알록달록, 아름답기 그지없다. 멀리 바라보니 끝없이 기복을 이룬 산맥이 마치 환란한 망토를 두른 것 같다.

/ 길림일보

